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주영*, 박성은, 박민조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u Young Park*, Seong En Park, Min Jo Park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증재와 대학생활 적응 교육 및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 4년제 일 간호대학의 1, 2학년생 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은 고위험군 47명, 잠재적 위험군 29명, 일반군 97명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군별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스마트폰 중독군별 사회적지지 평균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스마트폰 중독($r=-.34,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r=.38,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지지는 스마트폰 중독($r=-.17, p=.023$)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는 낮게 나타났으며($F=5.29, p=.023$), 대학생활적응도 낮게 나타났다($F=20.01, p<.001$). 스마트폰 중독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이 때 스마트폰 중독의 β 값 $-.264$ (B값 $-.178$)이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았을 때의 β 값 $-.327$ (B값 $-.221$) 보다 작아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였다($Z=2.11, p=.034$). 이에 대한 설명력은 21.5%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지지 관련 대학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smartphone addiction intervention as well as college adaptation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by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3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mong 4-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 the results, the number of subjects showing smartphone addiction was 47 in the high risk group, 29 in the potential risk group, and 97 in the general group, and the average level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was statistically lower as the level of addiction increased. The average social support level of the smartphone addiction group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smartphone addiction ($r=-.34, p<.001$)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r=.38, p<.001$). Social suppor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addiction ($r=-.17, p=.023$). Moreover, social support was partially medi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and related college policies are needed to improv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Keywords : College Adaptation, Mediating effect, Nursing Student,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6R1C1B1011969).

*Corresponding Author : Ju Young Park(Konyang Univ.)

Tel: +82-42-600-8625 email: jypark@konyang.ac.kr

Received September 14, 2017

Revised (1st October 30, 2017, 2nd November 22, 2017)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1.1 연구필요성

현 세대는 스마트IT시대 속에 살고 있다. 스마트 IT 시대란 IT를 일반인부터 기업·산업·공공 영역에서 보다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시대로, 국내에 스마트폰이 출시된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다[1]. 그러나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장점 외에 심각한 중독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의 조사[2]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78.0%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결과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nistry of Science[3]에서 실시한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에서 청소년(만10~19세)과 성인(만20~59세) 모두 4시간이상~6시간 미만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높은 4.9시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으나 보통 이용시간이 늘수록 중독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독을 보일 수 있는 결과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20대 중에서도 대학생의 중독은 더욱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대학생은 기존 고등학교 시기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성인으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에 위치한다[4]. 이 시기는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이 증가하며, 폭넓은 인간관계와 자기 주도적인 전공분야의 학문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경험, 습득할 수 있는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5]. 그러나 대학생은 독립성의 증가에 따라 주변인의 통제가 감소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되기 쉬우며[6], 이 시기의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문제와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다[7]. 또한 스마트폰 외의 관심사가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증상을 보이며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는 대학생 시기에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학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

그 중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여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높은 집중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스

트레스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8], 일반대학생보다 많은 학업량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비롯되는 두 가지 차원의 스트레스원이 동시에 작용하여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9] 실제로 N. S. Kim & G. E. Lee[10]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보다 더 높은 중독 수준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지식습득과 집중을 방해하여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저해하고 낮은 학업성취도와 책임감 결여를 비롯한 대학생활 부적응을 겪게 된다. 특히, 대학생활에 적응이 완벽하지 않은 1, 2학년일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으며[11] 더 나아가 이들이 임상 실습 교육과정에서도 실습 시간 내 잦은 스마트폰 이용을 하거나 대상자 및 의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인 간호학과 1, 2학년 시기에 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주로 스트레스[12], 우울과 충동성[13], 자기효능감[14], 자기통제력[15] 등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Y. M. Lee[16]의 연구에서는 휴대폰 중독집단이 낮은 대인신뢰감과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외로움을 휴대폰으로 채우려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들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준비단계에 있는 이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변화된 생활양식 속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획득해야하는 등 많은 적응문제에 시달리고 있다[17]. 이때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긍정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가 작용하여 대학생의 심리,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18].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종사하게 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간호업무성취를 높일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간호대학생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생활 전반의 적응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에서 매개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기존에 실시된 대다수의 연구

들은 대학생보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점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 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실습에 나가기 전인 1, 2 학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중 중독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완화하고 책임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고 스마트폰 중독 중재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중재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지지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4년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 2학년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 173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

해하고, 연구를 위한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학기 도중 휴학을 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대학생활 적응관련 선행연구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를 참고하여 G*Power 3.1.2 program(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107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예상 대상자 수는 중도 탈락을 고려하는 경우 충분한 대상자 크기로 판단된다.

2.3 연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11문항(성별, 학교생활만족도, 동거인, 어울리는 친구수, 하루 총사용 시간, 한달 평균요금, 사용동기, 많이 사용하는 기능, 사용후 만족도, 스마트폰차지비중, 자기중독평가), 스마트폰 중독 15문항, 대학생활 적응 34문항, 사회적지지 27문항의 총 8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성인 스마트폰 과중독 자가진단용 척도(S-척도)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의 4가지 하위요인의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며 역문항 3문항(4번, 10번, 15번)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20] 지침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총점 44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총점 40점 이상 43점 이하), 일반 사용자군(총점 39점 이하)으로 분류하였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3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일상생활장애 .739, 가상세계지향성 .797, 금단 .819, 내성 .807이었다.

2.3.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S. Y. Park[2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도구를 활용하였다. 대인관계, 전공만족, 전공 수월성, 대처역량, 취업준비, 학업충실도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며, 부정적인 문항(11번, 16번, 17번)은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0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3이었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대인관계 .835, 전공만족 .876, 전공수월성 .817, 대처역량 .859, 취업준비 .702, 학업충실도 .778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척도는 Noltan[22]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M. R. Lee[23]가 수정하고 S. H. Jang and. U. Jin[24]이 재수정한 것을 이용하였다. 부모지지, 교수지지, 친구지지 세 가지의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5이었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부모지지 .925, 교수지지 .926, 친구지지 .920이었다.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K대학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nstitution Review of Board, IRB No. 2017-020)의 심의를 통과한 후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 까지 시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연구대상자에게 먼저 연구에 대해 직접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는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자군별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정도는 One way ANOVA로 사후검증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25]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0.8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 결과, VIF 값은 모두 10 미만,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으로 최종적으로 독립변수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총 173명의 응답자 중 성별은 남자 20명(11.6%), 여자 152명(88.4%)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90명(52.1%)으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친구 68명(39.4%), 부모님 66명(38.2%), 혼자 39명(22.5%)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5명 이상의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같이하는 학생이 102명(59.0%)으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 미만 28명(16.2%), 2시간~3시간 미만 45명(26.0%) 3시간~4시간 미만 54명(31.2%) 4시간 이상 46명(26.6%)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요금은 4-6만원 미만이 71명(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용동기는 커뮤니케이션이 70명(40.5%), 각종 정보검색 52명(30.1%), 최근 유행 18명(10.4%), 학업도움 12명(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문자 및 카카오톡 82명(47.4%), 페이스북 등 SNS 35명(20.2%), 음악·영화·게임 31명(18.0%), 인터넷정보 활용 19명(11.0%), 음성통화 6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사용 후 만족도는 만족이 133명(76.9%)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113명(65.3%)의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중요하게 자리한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기

에 스마트폰 중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70명(40.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03명(59.5%)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ean±SD
Gender	Male	20(11.6)
	Female	153(88.4)
School life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lower than 25%)	19(11.0)
	Average(25-75%)	64(37.0)
	Satisfaction (higher than 75%)	90(52.0)
Type of residence	Alone	39(22.4)
	Parents	66(38.2)
	Friends and other	68(39.4)
Human relationship	Less than 1-2 people	22(12.7)
	3-4 people	49(28.3)
	More than 5 people	102(59.0)
Usage time	Less than 2 hours	28(16.2)
	2 hours or more ~Less than 3 hour	45(26.0)
	3 hours or more ~Less than 4hour	54(31.2)
	4 hour or more	46(26.6)
Usage fee (won)	Less than 40,000	47(27.2)
	40,000 or more ~less than 60,000	71(41.0)
	60,000 or more ~less than 80,000	43(24.9)
	80,000 or more	12(6.9)
Usage motive	The latest fashion	18(10.4)
	General information search	52(30.1)
	Help with study	12(6.9)
	Communication	70(40.5)
	Others	21(12.1)
Mainly used functions	Voice call	6(3.5)
	Mail	82(47.4)
	Internet Information	19(11.0)
	Music Movie Games	31(18.0)
	SNS	35(20.1)
Satisfaction after use	Dissatisfaction (lower than 25%)	4(2.3)
	Average(25-75%)	36(20.8)
	Satisfaction (higher than 75%)	133(76.9)
Importance (Charge ratio of day)	Important (higher than 75%)	113(65.3)
	Average(25-75%)	24(13.9)
	Little and Insufficiency (lower than 25%)	36(20.8)
Self-addiction evaluation	Yes	70(40.5)
	No	103(59.5)

3.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세 군으로 나누는 결과,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 27.2%(47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8%(29명), 일반 사용자군 56.1%(97명) 이었다. 사용자군별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4점 만점 중 2.53±.59점 이었으며 하부영역 중 내성 2.90±.71점, 일상생활장애 2.59±.64점, 금단 2.54±.76점, 가상세계지향성 1.95±.72점 이었다. 세 군의 스마트폰 중독평균은 고위험 사용자군 3.24±.27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77±.07점, 일반 사용자군 2.11±.4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80.30, p<.001), 사후분석 결과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개의 하부영역 점수인 내성(F=99.06, p<.001), 일상생활장애(F=70.90, p<.001), 금단(F=115.35, p<.001), 가상세계지향성(F=62.16,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분석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5점 만점 중 3.42±.49점 이었으며 하부영역 중 대인관계 3.74±.54점, 학업충실도 3.73±.652, 대처역량 3.67±.62, 전공만족 3.43±.69점, 취업준비 3.08±.75, 전공수월성 2.87±.69점 순이었다. 스마트폰 중독군별 대학생활적응 평균은 고위험 사용자군 3.17±.49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45±.38점, 일반 사용자군 3.53±.48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9.21, p<.001), 사후분석 결과 고위험사용자군(3.17±.49)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3.45±.38점)이나 일반 사용자군(3.53±.48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전공만족(F=4.59, p=.011), 전공수월성(F=9.82, p<.001), 취업준비(F=9.39, p<.001), 학업충실도(F=4.60, p=.011)는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인관계(F=1.75, p=.176) 및 대처역량(F=2.67, p=.072)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의 전공만족(3.18±.70), 전공 수월성(2.52±.62), 학업충실도(3.52±.69)는 일반 사용자군의 전공만족(3.55±.65), 전공 수월성(3.04±.69), 학업충실도(3.86±.6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취업준비 영역은 고위험 사용자군(2.70±.76)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3.25±.58)이나 일반 사용자군(3.22±.7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2.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of subjects

(N=173)

Variables	Mean±SD				F	Scheffe	p
	Total	High risk group ^a (n=47)	Subconscious risk group ^b (n=29)	Normal group ^c (n=96)			
Smartphone addiction	2.53±.59	3.24±.27	2.77±.07	2.11±.40	180.30	a>b>c	<.001
Disability of daily living	2.59±.64	3.23±.39	2.80±.37	2.60±.65	70.90	a>b>c	<.001
Virtual world orientation	1.95±.72	2.67±.60	2.05±.64	1.58±.49	62.16	a>b>c	<.001
Forbidden	2.54±.76	3.37±.42	2.81±.32	2.05±.56	115.35	a>b>c	<.001
Tolerance	2.90±.71	3.62±.29	3.26±.42	2.46±.57	99.06	a>b>c	<.001
College adaptation	3.42±.49	3.17±.49	3.45±.38	3.53±.48	9.21	a<b,c	<.001
Human relationship	3.74±.54	3.62±.49	3.78±.50	3.80±.57	1.75		.176
Major satisfaction	3.43±.69	3.18±.70	3.45±.70	3.55±.65	4.59	a<c	.011
Major excellence	2.87±.69	2.52±.62	2.88±.57	3.04±.69	9.82	a<c	<.001
Coping ability	3.67±.62	3.50±.56	3.74±.53	3.75±.66	2.67		.072
Prepare for employment	3.08±.75	2.70±.76	3.25±.58	3.22±.72	9.39	a<b,c	<.001
Academic fidelity	3.73±.65	3.52±.69	3.64±.47	3.86±.65	4.60	a<c	.011
Social support	3.72±.34	3.69±.30	3.63±.43	3.76±.32	2.03		.134
Parent support	3.77±.38	3.74±.36	3.68±.49	3.82±.35	1.61		.201
Professor support	3.67±.44	3.63±.47	3.56±.50	3.74±.40	2.31		.102
Friend support	3.72±.41	3.72±.40	3.66±.52	3.75±.38	0.58		.561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4점 만점 중 3.72±.3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부모지지 3.77±.38점, 친구지지 3.72±.41점, 교수지지 3.67±.44점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군별 사회적지지 평균은 고위험 사용자군 3.69±.30점,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63±.43점, 일반 사용자군 3.76±.32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2.03, p=.134), 3개의 하부영역인 부모지지(F=1.61, p=.201), 교수지지(F=2.31, p=.102), 친구지지(F=.58, p=.561)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3.3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스마트폰 중독(r=.34,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지지(r=.38,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지지는 스마트폰 중독(r=-.17, p=.023)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College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N=173)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upport	College adaptation
	r(p)		
Smartphone addiction	1	-.17(.023)	-.34(<.001)
Social support		1	.38(<.001)

3.4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 Fig. 1과 같다. 1단계인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변수인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값 -.1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29, p=.023),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이 종속변수인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β값 -.3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01, p<.001).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 사회적지지는 β값 .3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 모형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F=24.00, p<.001). 이 때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의 β값 -.264(B값 -.178)이 2단계의 β값 -.327(B값 -.221) 보다 작아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부분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Z=-2.11, p=.034) (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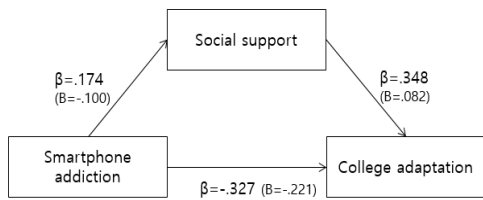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model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College Adaptation (N=173)

Variables	B	β	t(p)	R ²	F(p)
1. A→C	-.100	-.174	-2.30(.023)	.02	5.29 (.023)
2. A→B	-.221	-.327	-4.47(<.001)	.10	20.01 (<.001)
3. A→B	-.178	-.264	-3.80(<.001)	.22	24.00 (<.001)
C→B	.082	.348	5.010(<.001)		
Sobel test: Z=-2.11, p=.034					

* A = Smartphone Addiction, B = College Adaptation, C = Social Support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스마트폰 중독 중재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은 4점 만점 중 2.53±.59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다. 이 값은 같은 도구로 측정된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 [26]와 비교할 때 유사한 점수(2.42±.47점)이다. 이를 중독수준으로 분류해보면, 일반 사용자군 56.1%(97명),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16.8%(29명), 고위험 사용자군 27.2%(47명)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은 없으나, 중독집단을 잠재적 위험을 가진 사용자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을 때,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을 중독집단으로 분류하여 합하면

44%가 중독집단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스마트폰 중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0.5%로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대상자의 59.5% 중 일부는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 여부에 대해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습관 성찰 활동이 스마트폰 중독 개선에 영향이 있다는 조성현[2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중독 수준을 인지하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가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주변의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 항목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하부영역의 평균은 내성, 일상생활장애, 금단, 가상세계지향성 순이었고, G. S. Seo and S. Y. Bang[26]의 연구에서 또한 내성, 일상생활장애, 금단, 가상세계지향성 순이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내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에서 즐거움과 욕구충족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미활동 마련 및 교내외 동아리 활동 장려, 시간활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2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도는 5점 만점 중 3.42±.49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에 개발된 것으로 아직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다른 도구가 사용된 선행연구 결과 중 1, 2학년생의 평균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3.15점[28], 3.28점[29], 2.98점[30] 등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하부영역 중 대인관계, 학업충실도, 대처역량, 전공만족, 취업준비, 전공수월성 순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회적응과 학업적응이 다른 하위항목보다 높았던 연구결과[31]와 같은 맥락이며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발 학기, 신입생 세미나와 같은 대학적응 프로그램 실시하고 있기[32] 때문이지만,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응과 학업적응 이외에 4년간 학업지속의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전공만족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전

공맞보기와 같은 전공몰입 교육이나 취업동기유발 학기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중독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S. J. Joo[3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하부영역을 살펴볼 때 대인관계 및 대처역량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 중 다수가 스마트폰 사용 동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꼽은 점과 J. S. Park[34]의 연구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은 주로 주변사람들과 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변화된 환경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높아지므로 [35]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4점 만점 중 3.72 ± 34 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하위영역 중 부모지지 3.77 ± 38 점, 친구지지 3.72 ± 41 점, 교수지지 3.67 ± 44 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 L. Lee[36]의 연구와 비교하면, 사회적지지 평균은 4점 만점에 부모지지 3.23점, 친구지지 3.17점, 교수지지 2.8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지지가 더 높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1학년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함과 동시에, 특히 Active Learning 교수방법을 통하여 학생들 모두가 교수자 및 동료와 수업시간 이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지자로 여기는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위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순으로 나타나 S. L. Lee[36]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부모지지, 친구지지에 비하여 교수지지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 신뢰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Y. S. Ryu[37]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교수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단순한 지도교수 상담이 아닌, 학생들이 생각하는 상담 도움요소인 존중과 진솔성, 직·간접적 도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38]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연계성 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Active Learning과 연계하여 수업시간 이외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적은 경우 사회적지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Y. H. Yang[39]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들은 스마트폰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의 기능을 통해 관계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계에서의 서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한계를 SNS라는 가상의 대인관계와 현실의 대인관계 간의 상호 시너지를 형성하여[40], 관계유지에 필요한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 또한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4.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사회적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에는 음의 영향($r = -.17, p = .023$)을, 대학생활적응에는 양의 영향($r = .38, p < .001$)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G. H. Han[41]의 연구결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는 Y. H. Lee[17], J. H. Kim[18]의 선행연구결과와 사회적지지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긍정성, 통제성, 사회성이 높아져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H. J. Hwang[42]의 선행연구 및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행동과 양의 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43]와 같은 맥락에서 지지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대학생은 이론 및 실습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의 부족, 엄한 행동 규범, 낯설고 다루기 힘든 환자에 대한 부담, 과도한 과제 및 바쁜 일정 등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21].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의 이해, 격려, 신뢰와 지지는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대학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44]. 따라서 개인적 차원 이외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 내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학과 및 학과

동아리 단체 활동으로 교수-학생 간의 공감영역을 확대 하며 대중매체 캠페인 등을 통하여 사회적지지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r=-.34,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며[45], 대인관계에서의 낮은 만족도는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46], 더 나아가 개인의 적응과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를 초래한다[47]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의학지식 습득, 임상실습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이 향후 임상에서의 적응과 연관되므로 [48] 대학생, 특히 저학년 시기에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교수-학생 상담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조언을 포함 하거나 학과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효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하여 문제 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학생의 심리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18].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친구에게 신뢰나 애정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사용보다 부모와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선호할 확률이 높다는 J. H. Kim[18]의 연구결과와 불안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고[49] 스마트폰 중독에 사회적 지지가 간접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13]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회적지지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변수로써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간호대학생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 될 경우 대학생활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교수지지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C. W. Lee[50]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 체계가 와해되어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간호대학생을 입학과 동시에 선별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간호대학 저학년에게 사회적지지를 강화하면 스마트폰 중독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중독이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생활적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 저학년 학생들이 4년간 건강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향후 임상현장에서의 적응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지지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이와 관련된 대학의 실질적 정책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지지, 친구지지 측면에서는, 학생-부모와의 상호 소통 시간을 확장하고, Active Learning을 통해 수업시간 친구와의 교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 특히 부모와의 만남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상호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지 지 측면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상담소 운영 등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스마트폰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은 정기적인 스마트폰 사용습관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중독 수준을 인지해야 하며, 대학은 중독 수준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취미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의 여가시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을 D시의 특정 대학교 간호학과 저학년에 한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확대된 지역범위의 간호대학생 전학년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조사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의 사용목적이 긍정적 대인관계를 위한 관계유지 수단이었으므로, 관계유지에

필요한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활용과 중독 사이에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H. Park, M. G. Kim, J. H. Lee, "Comparison of existing IT and smart IT, The Electronic Times", 2012.[cited 2012 Feb.],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745&cid=58137&categoryId=58137>.(accessed Feb. 28, 2012)
- [2] 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A Study on The Usage of Smartphone users by Gender and Age", 2013.[cited 2013 Nov.], Available From: <http://www.kisa.or.kr>.(accessed Dec. 16, 2013)
- [3]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 2015.[cited 2016 May], Available From: <https://www.iapc.or.kr>.(accessed Jul. 13, 2016)
- [4]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5]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 University, Seoul, 2015.
- [6] H. S. Jeon and S. O.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8, pp. 103-129, 2014.
- [7] G. H. Han, "A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llectual and Emotional Empathic Ability",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Kangwon, 2013.
- [8] S.H.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2016.
- [9] J. Y. Park,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2011.
- [10] N. S. Kim and K. E. Lee, "Effects of Self-control and Life Stress on Smart 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37, no. 2, pp. 72-83, 2013.
- [11] W. S. Le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Learning Flow, Campus Life Adaptation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2012.
- [12] H. K. Park,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2017.
- [13] H. T. K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mpulsiveness, Anxiety Variables", Docto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2016.
- [14] H. J. Han,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Docto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2015.
- [15] J. S. Kim, "The Effects of self-control and self- efficacy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15.
- [16] Y. M. Lee, "Influences of Stress, Loneliness and Self-Control on the Addiction of Cell Phone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7, no. 2, pp. 156-163, 2011.
- [17] Y. H.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Wanju, 2016.
- [18] J. H.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Their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Daejeon, 2012.
- [19] E. B. Choi,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n Nursing performance among Nurses",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2016.
- [2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 [21]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17.
- [22] Noltén, P. W.,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s Thesis, Wisconsin-Madison University, USA, 1994.
- [23] M. R. Lee,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to Influence on the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01.
- [24] S. H. Jang and S. U. Jin, "A Study of Comparison of Cellular Phone Addiction Level,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Between Christian Teenagers and Non-Christian General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17, pp. 179-202, 2009.
- [25]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6] G. S. Seo and S. Y. Bang,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Life Str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398-40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4.398>

- [27] S. H. Jo, "Effects of smart phone usage habit reflection activities on smartphone addiction and self-control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2017.
- [28] E. J. Oh and S. A.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94-10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94>
- [29] M. S. Kim,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lleg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2, pp. 184-193, 201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2.184>
- [30] M. K. Lee and S. H. Lim,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Burnout,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521-534, 2017.
- [31] S. Y. Park, "The Influence of Adaption factor of College Life by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2016.
- [32] J. Y. Lee, "A Study on the Operation of <Freshman Seminars> and its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5.
- [33] J. Joo, "The Effects of Smart Phone Addiction on University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Control", *Forum for youth culture*, vol. 42, pp. 98-127, 2015.
- [34] J. S. Park, "The Variables in Influencing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12.
- [35] H. S. Par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Sangmyeong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vol. 18, pp. 55-83, 2004.
- [36] S. L. Lee, "The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7.
- [37] Y. S.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Faculty trust and School adjustment level: An Examination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2, pp. 245-263, 2012.
- [38] S. J. Song, "An Exploration into the Helpful and Dissatisfied Factors in the School Counselling Service that Are Recognized b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2015.
- [39] Y. H. Yang, "A study on the smart phone addiction by characteristics of using smart phone, loneliness,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Ulsan",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14.
- [40] J. W.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raduates" SNS Initiative on Interpersonal Relations", *Seoul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ion*, vol. 2016, no. 7, pp. 335-354, 2016.
- [41] G. H. Han,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smartphone addiction",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2014.
- [42] H. J. Hwang,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s university life", Master's Thesis, Kwangju Women University, Gwangju, 2017.
- [43] S. J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3.
- [44] K.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Korean student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0.
- [45] Y. R. Yu, "A Study on the Influence of Youth's Smart Phone Addiction, Empathy and its Correlation on 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aster's Thesis,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2014.
- [46] Xu, Qu, "The effects of facebook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on their sociality and self-identit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 University, Seoul, 2013.
- [47] H. S. Choi and J. C. Ha, "A Study on the factors induc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2, no. 3, pp. 437-448, 2011.
- [48]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49] Y. N. Jeong,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formation process of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6.
- [50] C. W. Lee,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Counselling Program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Children of Alcoholic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05.

박 주 영(Ju Young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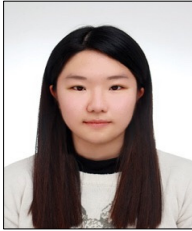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재난 및 IT융합 간호, 응급간호, 간호교육

박 성 은(Seong Eun Park)

[정회원]



•201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관심분야>

IT융합 간호, 간호교육

박 민 조(Min Jo Park)

[정회원]



•201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관심분야>

IT융합 간호, 간호교육